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학생인권과 교사지도권



김왕복

『교사지도권 보장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민주시민 육성을 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이거나 정당할 교사지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함께 규정하여 새로운 화합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 수도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체벌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교원과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원조 격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체벌 금지, 두발 규제 금지, 교과 외 학습의 학생선택권 존중, 수업시간의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등이다.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별명은 오장룡이다. 학생들을 구타하면 학생들이 바람 앞에 쓰러지듯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의자로 구타를 당한다. 그 이유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울리는 휴대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교실에서 학생인권과 교사지도권이 충돌하는 아주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은 마치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대립을 연상시킨다. 보수가 경쟁 지향이라면 진보는 평등 지향이고 보수가 기득권 유지의 이미지라면 진보는 변화 지향의 이미지를 띤다.

보수 성향의 기성세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좋아한다. 스승을 임금과 부모처럼 섬겨 예를 다하라는 뜻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20%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인성 부족 학생과 과잉행동장애아동이 많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계에는 ‘뉴 노멀(New Normal)’이 화두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생각과 행동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하여 있는 우리나라 학교에 ‘뉴 노멀’을 세울 때가 된 것 같다.

요즘 학교 현장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생활과 교육여건은 많이 좋아졌으나 교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자녀 한두 명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오늘의 모든 교육 문제가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20%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인성 부족 학생과 과잉행동장애아동이 많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계에는 ‘뉴 노멀(New Normal)’이 화두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생각과 행동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하여 있는 우리나라 학교에 ‘뉴 노멀’을 세울 때가 된 것 같다.

『교사지도권 보장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교원의 지위는 여러가지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사지도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국립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부실 운영 농·특산물 직판장 철수 검토해야

전남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앞다퉈 설립했던 농산물 직판장이 제구실을 못해 비상이 걸렸다.

담당군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 송파구 상가건물을 11억 원에 임대해 지역 생산품인 멜론·딸기와 한과류 등을 판매해 왔으나 매년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자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0년 13억8900만 원을 들여 제주시 서귀포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한 뒤 위탁 운영을 했으나 경영난 탓에 문을 닫아야 했다.

부실 적자 상대라는 것이다. 농·특산물 직판장의 수익성 악화는 무엇보다 관리 부실과 경쟁력 상실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단체가 농산물 판로 확보라는 ‘전시성’ 의욕만 내세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있다.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직판장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철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농·특산물의 판로 역시 인터넷 판매와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를 공략하는 다변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자치구, 불법 광고물 단속 외면 직무유기다

광주시 일부 자치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가 최근 공개한 남구·북구의 옥외 광고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지금은 도시의 품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리고 도시의 품격은 미관에서 비롯된다.

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도시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건물 외관과 옥외 광고물이기 때문이다.

『문화 수도』 ‘예향’을 자처하고 오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한 광주에 도시 미관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불법 광고물 근절은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광주시와 각 구청은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아야 한다.

중고칼럼



조영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소한 백 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백 년을 준비하여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수로 하는 교육(외국 지성인들이 한국을 철학과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의 형성을 위해 철학과 역사는 필수과목으로 해야 할 것이다.)을 전통적으로 지켜나 가야 하고, 진보적으로는 권위적이고 인맥적인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사랑과 진실, 정의와 성실의 자세로 학원의 참된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둘째로, 학생들을 ‘난 사람’과 ‘든 사람’ 우상주의의 희생물로 몰아가지 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백년지대계와 거리가 먼 것 같다.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나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일년지대계’(一年之計)가 아닌가 싶다.

고 ‘빈 사람’(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을 위한 인성교육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지 모르나, 사실 ‘난 사람’, ‘든 사람’이 될 사람은 소수의 학생들이다. ‘난 사람’, ‘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빈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존재론적 소명이다.

첫째,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상보하는 교육정책을 펴가길 바란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양비론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 양극화가 빛은 교육의 양극화와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를 말만 할 뿐이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첫째,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상보하는 교육정책을 펴가길 바란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양비론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올바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교육의 공동, 곧 스승과 제자 사이에 도리가 지켜지는 관계(희생의 신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을 지닌 스승이 되시길!), 타당한 체벌(체벌 무조건 금지가 상책인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둘째로, 학생들을 ‘난 사람’과 ‘든 사람’ 우상주의의 희생물로 몰아가지 말라. 인성교육, 철학과 역사 과목을 필수로 하는 교육(외국 지성인들이 한국을 철학과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라 한다.)을 전통적으로 지켜나 가야 하고, 진보적으로는 권위적이고 인맥적인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사랑과 진실, 정의와 성실의 자세로 학원의 참된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호객까지 하는 건강검진, 말기암도 놓치나

나의 남편은 광주의 S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해왔다.

불과 석 달 전에 건강검진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같은 증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그 충격은 너무 컸다.

물론 암의 경과로 보아 건강검진 때는 말쑥하던 사람이 석 달 만에 말기암이 된 건 아닐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진찰을 못했거나 결과 판독을 놓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남편이 S병원 건강검진을 받게 된 동기는 병원측이 아파트 단지에 봉고처를 이용하여 몇몇 며칠 건강검진을 실시하니 어느 특정 장소로 집중해 달라는 방송으로 일종의 ‘호객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확인해보니 S병원은 남편의 복부 촬영을 했고 판독은 비상근 외래 의사에게 의뢰했

다고 한다. 그 외래의사가 판독을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다. 나중에 같은 필름을 큰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확인해보니 “위암 가능성이 있으니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판독이 나왔다.

남편의 위암은 영상판독이 아니라 압진(壓診)으로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주변 경험자들의 말이다. 남편은 복부를 만져 보면 딱딱한 것이 느껴지는 상태였는데 S병원 인측에서 경험있는 의사가 남편의 배를 만져보지만 해도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무성의한 건강검진, 봉고차로 호객행위까지 하면서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형식적인 검진만을 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

S병원측은 최선을 다했으니 책임은 없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힘없는 서민은 호소해야 할 방법이 없어 통탄스럽다. 부정확한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시장 물건 팔듯 되어가는 건강검진에 대해 정부의 규제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남순자·광주시 서구 화정동

금연식당서 재떨이 없다고 쫓겨 버려서야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일이다. 점심을 먹으러 온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다가가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는 금연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알았더니 곧 끄겠다고 했다.

손님을 받고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손님은 얼른 끄겠다는 담배를 입에 물고 계속 괴워했다.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른 손님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얼른 쫓아가서 재차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똑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민망해 그냥 참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엔 담배꽂이를 자기가 먹은 밥 그릇에 버리는게 아닌가. 순간 다른

손님들이 볼까봐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둘러 다시 달려가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재떨이가 없잖아요.”였다.

정말 화가났다. 그 그릇에는 밥이 담겨지고 그건 손님들 입으로 들어가는건데, 또 금연 식당이니 재떨이가 없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식당이나 금연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 중 이런 경우 안 겪어 보신 분 없을줄로 안다. 서로간에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담배 피우는 예절이 아깝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흥동

악조건 속 음주단속 경찰관에 불평 대신 격려를

최근 차를 가지고 나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과 운전자 간에 시비가 붙었다. 운전자는 “왜 3개 차로로 막고 2개 차로에서만 단속을 하나? 차가 막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도 맞을 수는 있겠으나 참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 인력이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3개 차로 모두에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경찰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공무원행자이다. 그런데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군이요, 막 대해도 되는, 자신만을 검문하는 불공평한 경찰로 보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스크 하나 없이 그 무수한 매연을 마시며 목욕터 직무에 충실한 검문경찰관에게 막대하거나 거친 불만을 표시하는 건 민주 시민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無等鼓

내 고향은 ‘복암리 고분군’이 있는 나주시다. 복암리 고분군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한 삼한시대 유적 정지세력의 근거지였음이 드러났듯이 내 고향은 수천년간 영산강과 흥망을 함께 해 온 곳이다.

이런 탓에 40대 중반이지만 나에게도 영산강과 얽힌 추억이 꽤나 있다. 이맘때쯤이면 친구들과 한달음에 영산강에 달려가 먹을 감모래 더위를 식혔고 금모래 빛 강변에서는 재첩보다 3~4배 큰 강조개(우리는 강꼬막이라고 불렀다)를 캐 뒀장골을 끓여 먹기도 했다.

강변 갯벌에 형성된 갈대밭에서 농게·칠게와 벌인 두뇌게임도 상상하다. 칠게를 잡기위해 게 구멍에 45도 각도로 막대기를 찌르면 퇴로가 막힌 칠게란 놈이 어쩔 수 없이 입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때는 게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가 ‘주막대장’으로 불리는 농게의 빨강고 커다란 집게에 물러 괴성을 지르며 후퇴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날, 수업중에 판 생각을 하다 창밖을 내다 보았을때 눈에 들어온 황포돛배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영산강과 얽힌 이런 추억은 모두 1970년대 중반의 것이다. 영산강하구엔 공사로 물길에 막힌 뒤로는 그 많은 강조개와 게가 사라졌고 내 또래를 끝으로 영산강의 추억을 갖는 세대가 끊겼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이 4대 강 논란에 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로서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강조개와 농게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광유지만 31년만에 황포돛배가 다시 등장한 것처럼 강조개와 농게가 되돌아 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 물길에 트이고 수량이 늘어난다면 수질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장필수 시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영산강의 추억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